

‘SBS 치열업’ 신예 김현진 “서브병 유발자? 전혀 예상 못했죠”

첫 오디션서 주연 발탁... 짝사랑 경험 살려 연기
189cm 모델 출신 “남주혁 보고 콘테스트 지원”
“치열업 진선희가 아니라 김현진으로 남고파”

신예 김현진(26)은 SBS TV 종방극 ‘치열업’을 통해 ‘서브병 유발자’로 떠올랐다. 서브병은 주연 배우보다 서브에게 끌리는 현상이다.

극중 김현진은 의대생 ‘진선희’로 분해 연희대 응원단 테이아 신입 단원 ‘도해이’(한지현)를 짝사랑했다. 응원단장 ‘박정우’(배인혁)와 삼각관계를 그렸다. 방송 초반부터 선희·정우파로 나뉘는 여성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다. 해이와 선희가 이뤄지길 바라는 시청자도 많았는데, “서브남 앞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사랑 받을 줄 몰랐다”며 얼떨떨해 했다.

“캐스팅 됐을 때 제작진이 ‘선희 역을 위해 1년 넘게 오디션을 봤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해냈다’ 싶어서 정말 기뻐했지만, 순식간에 부담감이 몰려왔다. 다행히 주변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다들 ‘정말 선희같다’고 얘기해줘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다. 감독님이 5-6부에 대립 구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나뉘었다고 하더라. 나도 드라마 캐릭터를 두고 누구파, 누구파로 나누어 싸우는 걸 처음 봤다.”

김현진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후 첫 오디션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을 따냈다.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데다가 대학교 응원단을 배경으로 연기와 안무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다. “선희와 평소 말투가 비슷하다. 촬영하면서 점점 선희처럼 돼가는 느낌이 들었다”면서도 “춤 연습하며 연기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 ‘춤이 메인 인지, 로코가 메인 인지’ 싶었다. 양쪽 다 비중이 커 열심히 했다”고 돌아봤다.

완벽한 캐릭터라서 연기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선희는 똑똑할 뿐 아니라 외모가 수려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남 부러

울 것이 없었다. “연세대 응원단장님한테 물어본 적 있다. ‘의대생이 응원단 한 적 있느냐’고 하니 ‘예과 때는 진짜 없다’고 하더라. 다행히 응원단이라서 공부하는 장면은 안 나오다시피 했다”며 “선희는 해이와 안 이뤄지지 않았느냐. 집안 사정도 있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해 ‘이혼하는 게 어때냐’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배인혁(24)이 실제 응원단장처럼 카리스마 넘쳤다면, 김현진은 신입 단원답게 어설픈 모습도 귀여웠다. ‘뚝뚝 선희’라는 별명이 생긴 까닭이다. “선희도, 김현진도 몸치”라며 “오디션 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춤이 많은 줄 몰랐다. 연습하면서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다. 체력이 약해서 2-3분 되는 음악에 맞춰서 춤 추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올해 초부터 반년 넘게 찍었는데, 쉬는 날이나 촬영 끝나고도 다같이 모여서 연습했다”며 “초반에 연습할 때는 못했지만, 뒤로 갈수록 나아졌다. 촬영한 걸 보니 감독님이 잘 살려줬다”고 만족했다.

테이아 내 캠퍼스 커플(CC) 금지 설정도 재미를 더했다. 실제 연세대 응원단에 있는 롤이라며 “지킨 건 선희밖에 없다”고 웃었다. 응원단복은 500만원~600만원대로 꽤 비싸 2개를 번갈아 입었다. “파란색 단복은 통풍이 안 됐다. 복대까지 있었다”며 “한 여름에 촬영할 때 얼마나 많이 땀 흘렸는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델로 데뷔, 주변에 대학 생활 조언을 구했다. 치열업을 촬영하며 로망이 생길 법도 한데 “5일 정도만 대학 생활 해보고 싶다”고 바랐다.

“짝사랑 경험은 연기하는 데 많이 도움됐다. 축제선에서 고백할 때 울컥했다. ‘네가 나 안 좋아하는 줄 아는데도, 내가 너무 좋아’라는 대사다. 감정적으로 많이 이입했다. 처음에는 선희가 너무 들이대지 않았

냐. 시간이 지날수록 해이도 선희 감정을 이해해줬다. 내가 여자라면 (정우보다) 선희가 좋을 것 같다. 김현진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 그래도 선희처럼 좋아한다고 들이대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한지현(26), 배인혁 등과 호흡하며 배우 점도 많다. 또래 배우들과 1년 가까이 촬영하다 보니 “전우애를 느꼈다”고 할 정도다. 한 번도 ‘정우를 연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으며 “인혁이는 정말 정우 같았다. 나보다 두 살 어린데, 가끔 보면 형 같고 어른스럽다. 경험이 많다 보니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다. 해이도 한지현 아니면 안 됐다. 실제로도 밝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칭찬했다.

안무 연습할 때 틀리면 ‘커피 내기’를 하며 “의외로 내가 제일 안 틀렸다. 몸으로 기억하는 건 잘 안 까먹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승부욕이 세서 내기하면 안 틀릴 거라고 했다. 나중에는 미안해서 내가 사기도 했다”며 “지면 배우 10명 뒤통을 사야 하는데, 감독님한테 쫄래쫄래 가서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더라. 결국 감독님이 다 샀다”고 했다.

김현진은 모델 출신이다. 케이플러스와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가 주최한 ‘톱모델 콘테스트’에서 2등을 했다. 케이플러스와 계약 후 2년간 모델 활동했고, 일찍 군 복무도 마쳤다. “모델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고, 큰 미련이 없었다”며 “당시에는 ‘영장이 나오면 가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189cm 장신이지만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며 “고1 때는 키가 180cm라서 모델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진행하는 직업 체험이 있었다. 처음엔 요리사를 꿈꿔 호텔조리학교를 신청했는데, 그때 모델과도 있었다”며 “모델 콘테스트 1회 우승자가 남주혁 선배였다. 나도 해보고 싶었다”며 “2년 정도 모델 일만 계속했다. 드라마를 보는데, 모델 출신 배우들이 멋있더라. 나도 저렇게 연기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치열업은 김현진을 알려준 드라마다. 치



열업의 진선희가 아니라 치열업의 김현진으로 남고 싶다. 이번에 나온 사랑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다음에 로코를 찍으면 사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연기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다른 일은 처음 해봐서 다 신기했다. ‘힘들어봤자 군대보다 더 힘들겠어?’ 싶더라.

톱모델은 없지만, 마동석 선배를 제일 좋아한다. 박정진 선배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싶다. 요즘은 똘이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기보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순간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하려고 한다.”

방탄소년단·임영웅, 2022년에도 ‘올해를 빛낸 가수’

각각 30대 이하·40대 이상서 정상...5년째·3년째 1위



올해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톱 가수 임영웅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뽑혔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22년 올해를 빛낸 가수’로 30대 이하(13~39세)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이 29.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이 33.0%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멤버들의 순차적인 군 복무로 올해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를 기점으로 당분간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했지만 개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갤럽 ‘올해의 가수’에서는 2018년부터 5년째 1위다.

30대 이하가 뽑은 올해의 가수 2위는 아이유(26.6%)다. 2011년부터 계속 ‘올해의 가수’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2014년과 2017년 1위에 올랐다. 작년에는 직접 작사한 신곡 ‘리얼락’, 악무(악동뮤지션)와 협업한 ‘낙하’가 좋은 반응을 얻었고, 올해는 영화 ‘브로커’로 춘사국 제영화제 신인여우상을 받았다.

3위는 블랙핑크(16.6%), 4위 아이브(IVE, 13.0%), 임영웅과 뉴진스(NewJeans)가 공동 5위(6.5%), 7위 지코(6.1%), 8위 에스파(5.7%), 9

위 여자아이들(4.7%), 그리고 이무진(4.4%)이 10위다.

30대 이하에서 10위권 외 1.5% 이상 응답된 솔로 가수·그룹은 세븐틴(3.4%), 멜로망스(3.2%), 싸이(3.1%), 트와이스(2.6%), 성시경(2.3%), 태연(2.2%), 잔나비, 10cm(이상 2.1%), 임창정(2.0%), 비오(1.9%), 풀킴(1.7%), 윤하(1.7%), 르세라핌, 레드벨벳, 소녀시대, 정동원(이상 1.5%)까지 모두 16명이다.

임영웅은 40대 이상에서 3년 연속 1위다.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대회 호소력 짙은 노래를 선보이며 우승자가 됐다. 올해는 정규 1집 ‘아이 히어로(I'M HERO)’로 음원차트를 휩쓸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연달아 매진시켰다.

40대 이상에서 올해의 가수 2위는 ‘트로트 여제’ 장윤정(17.2%)이다. 그녀는 2014년과 2018년만 제외하고 2007년 이후 꾸준히 5위 안에 들었다. 3위는 영탁(12.4%), 송가인과 이찬원이 공동 4위(10.4%), 6위 나훈아(9.9%), 7위 진성(8.7%), 8위 정동원(7.6%), 9위 장민호(6.6%), 그리고 김호중(6.0%)이 10위다.

40대 이상에서 10위권 외 1.5% 이상 응답된 가수·그룹은 아이유(5.9%), 방탄소년단(5.6%),

김연자(3.1%), 남진(2.8%), 이문세(2.5%), 임창정(2.3%), 설운도, 싸이(이상 2.2%), 조승필(2.1%), 이승철, 양지은, 이선희, 성시경(이상 1.9%), 블랙핑크(1.7%), 주현미, 조항조(이상 1.6%), 박창근, 이무진(이상 1.5%)까지 모두 18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발표됐거나 불린 대중가요 중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는 30대 이하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8.5%),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6.9%)를 각각 많이 뽑았다.

30대 이하에서 ‘다이너마이트’의 10위권에 든 곡은 ‘러브 다이브(LOVE DIVE)’(아이브, 8.0%), ‘셧 다운(Shut Down)’(블랙핑크, 7.2%), ‘버터(Butter)’(방탄소년단, 6.7%), ‘새뽕(지코, 6.6%), ‘리얼락’(아이유, 6.1%), ‘신호등’(이무진), ‘뽕뽕지’(아이유)(이상 4.6%),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아이브, 4.4%), ‘핑크 베놈(Pink Venom)’(블랙핑크, 3.9%) 순이다.

40대 이상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 외 10위권에 든 곡은 ‘막걸리 한잔’(영탁), ‘초혼’(장윤정)(이상 5.9%), ‘이제 나만 믿어오’(임영웅, 5.5%), ‘안동역에서’(진성, 4.1%), ‘진포배기’(이찬원), ‘테스형!’(나훈아)(이상 3.9%), ‘우리들의 블루스’(임영웅, 3.6%), ‘보릿고개’(진성, 3.1%), ‘고맙소’(김호중, 3.0%) 순이다.

한국갤럽은 “30대 이하에서는 상위 열 곡 중 다섯 곡이 올해 발표된 신곡이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단 한 곡만 그러하다는 점에서 연령별 대중가요 선호·소비 경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8월, 9~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5302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활동한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그룹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세 명까지(자유응답) 묻는 결과다.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만 13~39세 ±2.0포인트·40대 이상 ±1.9포인트다.

응답률은 28.9%(총 접촉 1만8356명 중 5302명 응답 완료)다.

이특·태연·아이린, ‘SM타운’ 리더 총출동

타이틀곡 ‘더 큐어’ 모든 팀의 리더들이 대표로 참여



SM엔터테인먼트가 지속 가능한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송을 선보인다.

19일 SM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6시 공개되는 ‘2022 윈터 에스엔타운 : SMCU 팰리스

(2022 Winter SMTOWN : SMCU PALACE)’의 타이틀곡 ‘더 큐어(The Cure)’에서 이런 메시지를 담는다.

흥겨운 아프리카 리듬과 규모감 넘치는 파워가 특징인 팝 곡이다.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그로 인한 상처를 모두 함께 위로하고 치유해 나가자고 노래한다.

SM은 “이번 곡은 기후 변화에 대처해 SM이 앞으로 만들어 갈 글로벌 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강타와 보아를 비롯해 ‘동방신기’ 유노윤호, ‘슈퍼주니어’ 이특, ‘소녀시대’ 태연, ‘샤이니’ 은유, ‘엑소’ 수호, ‘레드벨벳’ 아이린, ‘엔시티’ 태용, 마크, 쿤, ‘에스파’ 카리나 등 SM 소속 모든 팀의 리더들이 대표로 참여했다. 태용과 마크는 랩 가사 작업도 함께해 메시지에 힘을 더했다.

배우 박해수, ‘SNL 코리아 시즌3’ 출격

배우 박해수가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3’에 나선다.

박해수는 ‘SNL 코리아 시즌3’ 6회 호스트로 나선다. 연기 실력만큼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박해수는 2007년 연극 ‘안나푸르나’로 데뷔해 공연계에서 중흥무진했다. 그러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2017) 주연을 맡으며 얼굴을 알렸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021) 흥행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 : 공동경제구역’(2022), ‘수리남’(2022)도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글



로블 스타 반열에 올랐다. 박해수는 “즐거웠던 ‘SNL 코리아’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